

“장애인 눈높이 진료...감동 · 감사 넘쳐요”

인천지부 장애인진료센터 탐방

“겁 안내고 잘 치료 받아줘서 고마워요.”

겁에 질려 두 눈을 꼭 감은 채 치료를 받은 장애인 환자에게 치료를 해준 치과 의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인술을 인천지부(회장 이상호) 회원들이 펼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2시 인천지부 장애인진료센터(이하 센터). 센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가천의과학대학교 치위생학과 봉사동아리(IVA) 학생들이 진료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다. 이들 사이로 뛰어다니는 영민(가명)이. 영민이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아픈 어금니를 치료하기 위해 이날 센터를 찾았다.

곧 유니트체어 위에 누워 긴장하고 있는 영민이에게 안세용 인천지부 국제사업이사가 연신 ‘용감하다’는 칭찬을 하며 능숙하게 씌운 어금니를 발치해냈다. 그리고 연이어 이어진 장애아동들의 진료. 안이사와 자원봉사 학생들, 때론 보호자들까지 달려들어 아이들을 붙잡고 달래며 치료를 하느라 진땀을 뻘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개소한 센터의 진료건수가 2000회에 육박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치과 의사 2명과 치과위생사 2명, 자원봉사 학생 3~4명이 의료팀을 꾸려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센터는 연평균 800여회에 달하는 치과진료를 하고 있다.

센터 자원봉사에는 현재 고정회원 12명을 비롯해 인천지부 임원들이 돌아가며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인천시청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8개 지역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치과치료가 시급한 중증장애 1·2급자들을 선별, 보존치료 위주의 봉사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틀니 사업도 진행, 올해 11



진료를 마친 송민호 · 안세용 인천지부 이사진이 자원봉사를 나온 가천의대 치위생학과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지부 임원·회원 주말 진료봉사 참여

2009년 개소 진료건수 2000회 육박

“치료 잘 받아줘 고마워요” 인사건네

명의 장애인에게 새 치아를 선물했다.

뇌병변을 앓고 있는 딸을 데리고 센터를 찾은 주부 A씨는 “아이의 장애와 관련한 치료를 받느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보험적용도 안 되는 치과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의 모임을 통해 센터를 처음 접했는데, 무엇보다 아이에게 너무 친절한 의료진 때문에 더 감동을 받았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센터설립은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 서 오던 인천지부의 숙원사업으로 정춘근 전 인천지부 회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천시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게 됐으며, 센터 개소 이후에도 매년 인천시의 예산과 회원 자체 기부금 등을 통해 시설을 보완 · 확충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애인 무료틀니사업에 동참했던 인천지부 이사진들이 진료비 일체를 전액 기부해 진정가스 장비를 구입키로 했다.

인천지부는 센터 개설에 앞서 지난 2002년부터



안세용 인천지부 국제사업이사가 장애아동을 진료하고 있다.

2007년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노들담복지관에 장애인 진료소를 개소해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는 현재의 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진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송민호 인천지부 보건의사(치협 군무이사)는 “자원봉사를 하는 인천지부 회원들은 치과 의사로서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나눠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있다. 지부 차원에서 별도의 진료공간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인천에는 전문화된 장애인진료센터가 없는데 센터에 오면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 받을 수 있어 좋다는 말을 많이 한다. 앞으로 시설이나 봉사자 등 진료 인프라가 더욱 확대돼 더 많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인천지부 회장은 “장애인 진료의 사각지대가 치과의료계에도 많이 존재하는데 인천지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료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최근 불법 네트워크와 문제로 혼탁한 개원이 환경 속에서도 치과 의사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대형병원들과 연계해 인력 및 시설을 더욱 확장, 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인천지부는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3면에 이어 계속〉

사업자 자발적 지원시 제한 없음 예외 조항 삭제

반면 다소 불리할 수 있는 항목은 자체적으로 삭제했다.

제약협회나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시 기부, 식음료 제공,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 광고 등을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에 대해 지원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치재협은 이를 항목에서 아예 빼버렸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학술대회, 기부,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규약위반 조사 및 조치 등 실질

적인 업무를 하게 될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심평원, 치협, 치기협 등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5명 치과기재업계에서 간사를 포함한 7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있다.

치재협계가 위원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의결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 협회 및 학회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광고와 인쇄매체의 광고비용도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규정은 웹사이트의 광고의 경우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월 1백만원까지, 인쇄 매체의 경우 표에 따라 최소 60~1백50만원까지 금액을 책정했다.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비롯

해 민영지를 제외한 치과계 전문지 광고 단가를 치재협이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에는 의료기관, 학회만 규정돼 있을 뿐 ‘협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처럼 유리하면 넣고 불리하면 빼는 식의 일부 행태만 보더라도 “불가피하게 큰 틀에서는 기존 규약과 내용을 같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치재협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치협은 이에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정리해 치재협에 전달, 수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운용기준을 따르겠다는 강력한 방침이다.

우종윤 담당 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애초 발단은 제약회사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는 등 관련 폐

단을 잡기 위한 것이었는데 의료기기 및 치과업계로 확대가 되면서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치재협 임원들과 이번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문제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겠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규약이 덜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운용기준을 따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치재협은 7월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면서 3개월간의 의견접수 및 관계기관 협의 후 10월 공정위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치협을 비롯한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산하지부, 학회 등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